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8, No. 4, 2016. 11, pp. 5-24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

정 순 둘+
(이화여자대학교)
정 주 희++
(이화여자대학교)
김 미 리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각 세대별로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세대갈등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1,000명의 조사대상자들을 인구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후 청년층 476명, 중년층 369명, 노년층 155명의 3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의 세대갈등인식의 차이, 연령주의 관련 변수와 연령통합 관련 변수가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각 연령집단별로 세대갈등인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연령주의 관련 변수 중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이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수록 세대 간 갈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세대갈등인식이 연령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인식과 편견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세대갈등인식, 연령주의, 연령통합, 연령집단별 차이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5071)
+주저자, ++교신저자

1. 서론

갈등현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다양한 갈등들이 사회 안에서 주목을 받아왔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왔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의 계급 간 갈등, 성별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와 역할에 따른 갈등, 인종과 종교, 문화에 따른 갈등 등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갈등들이 주목을 받고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즉 그 시대와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갈등들이 부각되고 해결을 위한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한편, 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갈등문제로 세대갈등을 들 수 있다. 세대갈등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늘 존재해 왔던 이슈 중 하나이지만(이장익·이명신, 2011),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령대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제는 3세대를 넘어 적어도 4세대 이상의 다세대(multigenerations)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함인희, 2000)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유하는 경험과 역사가 다른 각 세대들이 자신들 나름의 가치와 문화라는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됨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며 공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갈등은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인의 갈등의식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연구(윤인진, 2011)에 따르면, 계층갈등과 지역갈등에서의 심각성은 감소한 반면 이념갈등과 세대갈등이 사회갈등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갈등과 대립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에 따라(박명호, 2009; 황아란, 2009, 이상록·김형관, 2013, 재인용), 세대갈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대갈등은 조화롭고 통합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인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질도 연관된다(박영신 외, 2010)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탐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세대갈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으로서의 '효경사상'이 점차 약화되면서 겪는 부모-자녀세대, 신·구세대의 가치관 충돌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조성남, 1991; 박병석, 1995; 류한근, 2010; 박재흥, 2010).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대 간 교류 기회가 적어지면서 이러한 세대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왔다고 설명하기도 한다(한정란 외, 2006). 그리고 여기에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을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Riley, 1985).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왔고, 산업 구조 등의 변화로 인하여 계속된 청년 실업의 문제들이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연관되면서 점차 세대 간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수연 외, 2010).

이러한 가치관의 문제나, 자원배분의 문제들도 세대 간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연령에 대한 편견 혹은 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그 자체가 세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노화의 과정상에 존재하며,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특정 연령에 대해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연령은 사회 속 개인들을 범주화하고 분리시키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김욱, 2002; Nelson, 2005; North and Fiske, 2012). 예를 들면 연령이 기준이 되어 사회에서 은퇴를 해야 한다거나 노동시장의 임금구조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연령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거나 차별하게 될 때 이를 '연령주의'라 하는데(김주현, 2009; Laws, 1995), 연령주의 혹은 연령차별은 인식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며,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비율의 변화와 함께 연령주의에 대해 논의를 하는 연구들에서 이들 연령에 의한 편견이나 차별이 연령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세대갈등으로 발전하거나 세대통합 인식에 방해가 될 수 있음(김주현, 2009; 정순둘 외, 2015b)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연령으로 인한 차별과 반대되는 개념인 '연령통합'은 연령으로 인한 장벽을 없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제도 내에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며,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Riley and Riley, 2000). 연령이 기준이 되지 않는 연령통합의 사회는 연령과 무관한 사회(age-irrelevant society)가 되며,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정경희, 2004). 따라서 연령통합은 세대 간의 교류와 관련되며 연령통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세대갈등인식이 매우 낮을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함인희, 2000; 남순현, 2004; 박재흥, 2010; 이수연 외, 2010; 윤인진, 2011)은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세대갈등인식의 변화나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 왔으나, 연령주의나 연령통합적 요인들과 세대갈등을 연결 지어 논의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실증적 차원에서 연령통합을 고려하여 세대갈등을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수연 외(2010)의 연구보고서에서 노인차별과 이미지 등 유사한 개념들과 세대갈등인식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 연령주의나 연령통합과 세대갈등과의 관계를 연결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세대갈등인식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를 연령집단별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연령차별과 연령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 세대갈등인식을 낮추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을 모색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세대갈등

세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이에 따라 서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과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cohort effect)을 의미한다(박재흥,

2003). 이에 더하여 같은 세대는 연령에 따른 인식의 시간적 변화인 연령효과(age effect)를 공유하게 된다(조성남·박숙미, 2002). 사회는 빠르던 혹은 느리던 간에 항상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변화로 인해 각각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경험과 가치관, 사회화 과정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변화는 세대 간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며, 차이는 곧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세대갈등은 세대차이에 의해 시작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박재흥, 1995; 남순현, 2004; 최원기, 2006; 이환범·김태희, 2014; 유병래, 2015). 여기서 비슷한 연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화적 또는 역사적 사건들 때문에 각 세대만의 고유한 가치관, 정서,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세대차이'라고 한다. 이때 모든 세대차이가 세대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대립하고 있는 이념이 충돌하며 폭력 및 비방과 같은 특정 현상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세대갈등'이라고 한다(최원기, 2006; 유병래, 2015).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변화를 겪은 사회일수록 각 세대가 경험하는 문화의 폭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 세대 차이도 더욱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김윤정 외, 2004). 20세기 초반에는 제한된 교통수단과 좁은 행동반경 때문에 다른 세대들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현대사회에 비해 적은 세대갈등이 있을 수 있었다(Higgs and Gilleard, 2010).

이러한 세대갈등에 대하여 사회심리학자들은 현실적 집단갈등이론, 사회적 정체성 이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한정란, 2002: 93-95).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에서는 사회 안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 세대는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인지적 이해와 정보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타인을 고정관념에 입각해 분류하고 범주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 간 차이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집단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여기서 세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세대갈등을 설명하는 관점에서는 세대갈등은 세대 간의 접촉 부족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되고 이는 오해와 고정관념을 만들어내어 결국 세대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 각각이 세대갈등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연령과 세대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세대 간 접촉부족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시적 현상으로서의 세대갈등을 설명하는 관점과 이로 인해 생겨난 편견이 고정관념이 된다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이 본 연구와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세대 간 접촉부족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대한 편견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인간의 인지적 범주화 과정에서 고정관념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어 세대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현실적 집단갈등이론에 입각하여 가족 내 세대갈등 또는 국민연금, 증가하는 노인부양비,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정치적 대립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갈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가족 내 세대갈등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이나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난다. 김지영(2005)에 따르면 노인부양 시 주거비, 생활비, 병원비와 같은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며 원망과 불화가 생길 수 있고 가정 내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서로 다른 부양의식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갈등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유희정, 2000; 남순현, 2004; 김지영, 2005). 예를 들어 노인들은 자식으로부터 자신들이 경험해 왔던 전통적인 부양의식과 효도를 바라지만 자녀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대갈등이 일어난다(유희정, 2000).

가족 내 세대갈등 이외의 연구들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세대갈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연금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로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김상호, 2007; 강량, 2013).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때문에 현재 청년세대는 높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적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는 노인세대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김상호, 2007; Foner, 2010). 게다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또한 현 사회 세대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박길성, 2011; 강량, 2013). 미약한 경제 성장률,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비정규직 일자리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기대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청년층의 분노가 다른 세대를 향하며 분출되며 세대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세대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유석 외(2015)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한 노인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 위주 선거공약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기존 연구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러한 원인들을 넘어 세대 간 접촉부족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시적 현상으로서의 세대갈등을 설명하는 관점과 이로 인해 생겨난 편견이 고정관념이 된다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근본적으로 나이가 듦 혹은 연령이 사회 내의 불균형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연령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차이와 연령에 따르는 이미지나 인식에서 오는 차이가 상호이해를 방해하거나, 교류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여건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도 세대 간 갈등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세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연령주의와 세대갈등

연령주의(ageism)는 성차별주의(sexism)와 인종차별주의(racism)를 포함한 세 개의 -ism들 중 아직 가장 잘 이해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과 이념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Ng, 1998). 김주현(2009)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세대는 각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보다는 연령이라는 편견 안에 갇혀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고 이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는 노인 부양 지원 문제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같은 측면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심화된다. 과거와 비교하여 노인의 지위는 하락하고 있고 부모부양 모습이 바뀌고 있어 자녀

들은 더 이상 노인들을 돌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노인 스스로도 독립생활을 선호하고 있지만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김주현(2009)은 이러한 부양책임의 갈등이 결국에는 가족 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고 하였다. 사회에서는 노인세대가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분류되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진다고 해서 업무효율성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Palmore, 1999),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를 원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고령근로자들은 적은 임금, 제한된 직종과 불안정한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은 젊은 연령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회에서 세대갈등의 이유가 된다(이상림, 2009). 하지만 연령주의가 세대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라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연령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령주의 수준, 세대 간 인식, 연령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령주의 수준은 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연령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의 정도와 실제 타인과의 상호작용결과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대 간 인식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감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다른 세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인지하고 있다면 연령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연령주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결국 연령주의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은 연령주의와 세대갈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대 간 인식이란 결국 다른 세대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와 감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세대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는데, 최유석 외(2015)의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세대와 세대갈등을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노인세대와 많은 갈등이 있다고 인지하지 않았으며, 노인들이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을 돌봐 온 노인의 기여는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국민연금과 노인 돌봄에 필요한 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세대 때문에 청년 일자리와 청년 관련 정책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훗날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과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미래에 세대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남녀노인의 세대갈등에 대한 연구(이수연 외, 2010)에서 노인세대는 문화적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노인세대는 노인이미지가 부정적일수록, 노인이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연령통합과 세대갈등

연령통합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사회 안의 제도나 역할, 지위 등에 있어서 연령이 장벽이 되지 않으며, 여러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정경희, 2004; 정순둘 외, 2015a; Riley and Riley, 2000). 연령통합은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의해 설명된다. '연령유연성'이

란 사회 속에서의 특정 역할 또는 제도로의 진입과 퇴거가 연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이에 대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뜻하며, '연령다양성'은 동시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연령집단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경험과 문화 등을 공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령통합은 각 세대 간의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바탕이 된다(정순둘 외, 2015b).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교류의 기회가 많고, 상호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과 더불어 연령통합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기대, 고령자도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통합의 관점 중 실제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연령다양성의 개념은 세대교류경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다양성의 개념을 세대교류경험으로 한정하여 세대갈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노인과의 접촉 빈도 또는 노인접촉의 질이 노인에 대한 인식과 세대갈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다. 즉 노인과의 높은 접촉 빈도를 가진 사람들이 혹은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노인과 세대갈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Rosencranz and McNevin, 1969; Brown et al., 1986; Aday et al., 1991). 그리고 방희정과 이현지(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접촉의 질이 높았던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노인과 세대갈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고 했다. 또한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것도 낮은 세대갈등 인식에 기여하였음을 보이며 가족 내 세대교류가 세대갈등 인식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원영희, 2004).

(3)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세대갈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세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러 연구들은 성별 요인이 세대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안옥희 외, 2002; 이수연 외, 2010; 최미정·심정신, 2014; 최유석 외, 2015). 하지만 가족 내 세대갈등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부모님과 이성, 결혼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연구 또한 볼 수 있었다(Chung, 2001).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대갈등의 가능성을 더 많이 인식하였으며, 대학생들의 경우 경제적 요인은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최유석 외, 2015). 또한, 교육수준은 노인세대에는 세대갈등에 영향력이 없었던 반면, 비노인세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다(이수연 외, 2010).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을 포함한 7개의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와 8개의 도 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을 포함한 총 15개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도별, 연령, 성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훈련된 전문조사원에 의하여 사전 교육 후 1:1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해 인구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총 1,0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 세대갈등인식 정도와 갈등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연령집단의 구분 기준은 학자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사용하는 45세 기준과 노인복지법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65세를 구분 기준으로 하였다. 65세 이상의 집단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동질성을 가지며, 45세 이상 65세 미만은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경험하였다는 동질성이 있고, 45세 미만은 디지털, 미디어 등 정보화시대에 적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 연령집단은 청년층은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476명이었으며, 중년층은 4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369명, 노년층은 65세 이상으로 155명이었다.

2) 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세대갈등인식

세대갈등은 실제로 세대 간의 교류과정에서 겪는 갈등의 존재나 경험으로도 측정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안에서 세대 간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인식에 의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즉, 실제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는 별도로 사람들이 세대갈등을 느낀다면 이 또한 세대갈등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연 외, 2010). 인식은 직·간접적인 경험의 토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도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갈등을 통해서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세대갈등인식은 세대갈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단일 문항에 대하여 동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점수는 '전혀 동의안함(=1)'에서부터 '매우 동의함(=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세대갈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2) 독립변수

① 연령주의 관련 변수

연령주의는 연령주의 수준, 세대 간 인식,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의 세 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가. 연령주의 수준

연령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주현(2012)에 의해 개발된 연령주의 척도 중 7개의 하위요인, 즉 '노화에 대한 인식으로서 노화에 대한 불안', '외모변화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요인', '노인에 대한 편견', '연령(고령)에 대한 차별 행동', '노인에 대한 기피/회피', '노인집단과의 분리'등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과 '연령에 대한 차별행동'의 두 가지 하위 요

인만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하위요인들 가운데 노화나 외모변화, 노년에 대항 긍정적 기대 등과 같이 개인심리적 측면의 문항은 제외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결과 나타난 연령차별에 초점을 두고 '노인에 대한 편견(4문항, 총 20점)'과 '연령(고령)에 대한 차별 행동(3문항, 총 15점)'에 관한 7개의 문항만을 연령주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각 항목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연령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각각 .738과 .703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나. 세대 간 인식

세대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각 세대에 대한 견해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사용한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대한 문항들을 활용하였는데, 특히 신·구세대를 대표하는 연령대로서 20대와 70대 각각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측정하였다. 먼저, 20대와 70대에 대한 인식은 이 연령집단에 대한 사회가 인식하는 이미지에 대해 측정하는 것으로 '친근하다', '유능하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훌륭하다'라는 각 항목에 대해 사회의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을 묻고 있다. 각 서술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10)'까지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20대와 70대에 대한 감정은 조사대상자가 각 연령집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측정한 것으로, '매우 부정적(=1)'에서 '매우 긍정적(=10)'까지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0대에 대한 견해'와 '70대에 대한 견해'는 위의 인식과 감정을 합한 변수로, 최고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20대와 70대 각각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대에 대한 견해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853이었고, 70대에 대한 견해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777로서 두 변수 모두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다.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은 개인들 스스로 연령에 의한 분절 혹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즉 "연령 때문에 차별하는 현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전혀 심각하지 않음(=1)'부터 '매우 심각함(=10)'까지의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내의 연령차별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연령통합 관련 변수: 세대교류경험

세대교류경험은 연령통합의 개념구성요소 중 하나인 연령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통해 연령통합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대교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령자와의 교류 경험 정도에 대해 묻고 있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거의 없다(=1)'에서 '함께 살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한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세대교류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③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직업유무, 교육수준, 가구월소득이 사용되었다. 성별, 직업유무는 더미 코딩하였으며, 각각 '남성'과 '직업 있음'에 1값을 부여하였다. 가구월소득은 200만원을 단위로 등간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총 교육받은 연수로 측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구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자료를 보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였고, 세대갈등과 연령주의 변수, 연령통합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분산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먼저 분산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의 동질성을 검정한 후,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Welch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으로는 등분산 가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고,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Games-Howell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를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남성이 49.8%였고, 여성은 50.2%였으며, 중년층은 남성이 49.3%, 여성이 50.7%였다. 노년층은 남성이 51.9%, 여성이 48.1%로 여성이 다른 집단보다는 적었지만, 각 집단들은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직업유무는 청년층의 경우 65.5%가 직업을 갖고 있었고, 34.5%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은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인 74.2%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25.8%는 직업이 없었다. 노년층은 50.6%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49.4%가 직업이 없어 각 집단들 중 직업이 없는 대상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월소득은 청년층의 경우, '200~40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서 '400~600만원 미만'이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경우 '400~600만원 미만'이 47.4%로 가장 많았고, '200~400만원 미만'이 28.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었다. 노년층의 가구월소득은 '0~200만원 미만'이 5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400만원 미만'이 37.4%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년층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구월소득이 높았고, 노년층의 가구월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수준에서는 청년층이 평균 14.33년으로 가장 높았고, 중년층의 평균은 이 보다는 약간 낮은 13.09년이었다. 노년층은 이들 두 집단보다 매우 낮은 수치인 8.99년이

었고 표준편차도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청년층(N=476)		중년층(N=369)		노년층(N=155)	
		n / M	%/ SD	n / M	%/ SD	n / M	%/ SD
성별	남성	237	49.8	182	49.3	80	51.9
	여성	239	50.2	187	50.7	75	48.1
직업유무	있음	312	65.5	274	74.2	78	50.6
	없음	164	34.5	95	25.8	77	49.4
가구 월소득	0~200만원 미만	33	6.8	28	7.7	79	50.8
	200~400만원 미만	198	41.6	105	28.4	58	37.4
	400~600만원 미만	180	37.8	175	47.4	16	10.2
	600~800만원 미만	51	10.7	50	13.6	2	1.4
	800~1,000만원 미만	8	1.7	9	2.5		.3
	1,000만원 이상	7	1.4	1	.3	-	-
교육수준	교육받은 년 수	14.33	2.17	13.09	2.46	8.99	3.84

2) 세대갈등인식에 대한 연령집단 간 차이

각 연령집단 간에 세대갈등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에 앞서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실행한 결과,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Welch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세대갈등의 인식 정도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세대갈등에 대해 질문한 문항에 대하여, 청년층은 평균이 3.67점으로 집단 가운데 세대갈등인식, 즉 세대갈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중년층은 3.63점, 노년층의 경우는 3.59점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 세대갈등인식이 다소 낮았지만, 분산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집단의 세대갈등인식의 수준 비교

변수	집단	N	M	SD	F(p)	사후검정
세대갈등인식	청년층	476	3.67	.74	.866 (.421)	-
	중년층	369	3.63	.76		
	노년층	155	3.59	.76		

3) 연령주의 관련 변수와 연령통합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 연령주의 관련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연령주의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 각 연령집단 간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주의 수준의 하위요소인 노인에 대한 편견은 청년층 11.92점이었고, 중년층은 12.04, 노년층은 11.55점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연령차별행동은 각 연령집단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5.886, p〈.001). 청년층이 평균 7.57점, 중년층이 8.47점이었으며, 노년층은 9.59점으로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순서로 차별행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3〉 연령주의 관련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비교

변수	집단	N	M	SD	F(p)	사후검정
연령주의 수준						
노인에 대한 편견	청년층(a)	476	11.92	3.02	1.749 (.175)	-
	중년층(b)	369	12.04	2.87		
	노년층(c)	155	11.55	2.65		
연령차별행동	청년층(a)	476	7.57	2.48	45.886*** (.000)	a<b<c
	중년층(b)	369	8.47	2.22		
	노년층(c)	155	9.59	2.36		
세대 간 인식						
20대에 대한 견해	청년층(a)	476	28.09	7.37	8.813*** (.000)	bc<a
	중년층(b)	369	26.82	6.38		
	노년층(c)	155	25.55	6.65		
70대에 대한 견해	청년층(a)	476	27.72	5.44	28.627*** (.000)	ab<c
	중년층(b)	369	28.28	5.44		
	노년층(c)	155	31.47	5.39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	청년층(a)	476	6.71	1.60	4.484* (.012)	b<a
	중년층(b)	369	6.40	1.63		
	노년층(c)	155	6.44	1.55		

*p〈.05, **p〈.01, ***p〈.001

세대 간 인식에 있어서 20대에 대한 견해는 청년층 평균 28.09점, 중년층 26.82점, 노년층 25.55점으로 각 연령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813, p〈.001). 청년층이 중년층과 노년층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청년층이 20대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70대에 대한 견해는 청년층은 평균 27.72점이었고, 중년층은 평균 28.28점이었으며 노

년층은 31.47점으로 역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8.627, p<.001). 20대에 대한 견해와는 반대로 노년층이 청년층이나 중년층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 노년층이 70대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4.484, p<.05),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연령차별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통합 변수인 세대교류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비교

연령통합 변수인 세대교류경험 대하여 각 연령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세대교류경험은 고령자와의 교류경험을 묻고 있는데, 청년층의 평균은 2.76점이었고, 중년층은 3.09점, 노년층은 4.29점이었으며, 각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68.033, p<.001). 노년층이 고령자와의 교류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년층과 청년층 순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고령자와 교류할 기회가 적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4〉 연령통합 변수인 세대교류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비교

변수	집단	N	M	SD	F(p)	사후검정
세대교류경험	청년층(a)	369	2.76	1.51	68.033*** (.000)	a<b<c
	중년층(b)	155	3.09	1.43		
	노년층(c)	155	4.29	1.00		

*p<.05, **p<.01, ***p<.001

4)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살펴본 결과 2이상을 넘지 않아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 청년층의 모델은 유의미한 것(F=4.628, p<.001)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7.1%였다. 변인들 가운에서 성별(β=-.103, p<.05), 교육수준(β=.116, p<.05), 20대에 대한 견해(β=-.128, p<.01),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β=.222, p<.001)이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 중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어서 20대에 대한 견해, 교육수준, 성별 순으로 세대갈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차별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세대갈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대갈등 존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세대갈등 존재에 대한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모델 역시 유의미한 것(F=5.083, p<.001)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0.0%였다.

직업유무(β=-.128, p<.05), 20대에 대한 견해(β=-.163, p<.01),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β=.275, p<.001)이 세대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 20대에 대한 견해, 직업유무 순으로 세대갈등인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연령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수록 세대갈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을수록 세대갈등이 존재함을 크게 인식하였고, 직업을 갖지 않은 대상자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 비해 세대갈등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청년층 (N=476)		중년층 (N=369)		노년층 (N=155)	
		B(S.E)	β	B(S.E)	β	B(S.E)	β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 (남성=1)	-.152 (.071)	-.103*	.095 (.091)	.062	-.047 (.141)	-.031
	직업유무 (있음=1)	-.095 (.076)	-.061	-.223 (.101)	-.128*	-.116 (.131)	-.076
	가구월소득	-.050 (.036)	-.063	-.041 (.048)	-.048	.013 (.083)	.012
	교육수준	.040 (.016)	.116*	.012 (.018)	.039	-.026 (.018)	-.131
연령주의 관련변수	**연령주의 수준**						
	노인에 대한 편견	-.003 (.012)	-.012	-.014 (.014)	-.051	.021 (.024)	.074
	연령차별행동	.016 (.014)	.052	.009 (.018)	.027	.047 (.028)	.145
	세대 간 인식						
	20대에 대한 견해	-.013 (.005)	-.128**	-.019 (.006)	-.163**	.013 (.010)	.111
	70대에 대한 견해	-.005 (.006)	-.036	.002 (.007)	.014	-.022 (.011)	-.152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	.103 (.021)	.222***	.129 (.024)	.275***	.103 (.040)	.210*
연령통합 관련변수	세대교류경험	-.011 (.023)	-.023	-.013 (.027)	-.024	-.075 (.061)	-.099
Constant (S.E)		3.130***(.383)		3.462***(.420)		3.200***(.673)	
F (p)		4.628***(.000)		5.083***(.000)		2.414*(.011)	
Adj R^2		.071		.100		.084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모델도 유의미한 것(F=2.414, p<.05)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8.4%였다. 다른 연령집단과는 달리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β=.210, p<.05)만이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수록 세대갈등 존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령차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세대갈등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통합관련 변수인 세대교류경험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인식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령집단별로 확인하고, 세대갈등을 줄이기 위해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지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총 1,000명의 조사대상자를 인구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후 청년층 476명, 중년층 369명, 노년층 155명의 3개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대해 각 연령집단간 연령주의와 연령통합, 세대갈등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세대갈등인식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각 연령집단별 세대갈등인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대갈등인식에 있어서 세 집단 모두 어느 정도 갈등이 존재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식은 세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년세대, 중년세대, 노인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대갈등인식점수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갈등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이수연 외, 2010)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세대가 세대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미 선진국에서 세대갈등이 존재한다고 문제제기한 선행연구결과(Thomson, 1989; Zemke et al., 2000)와 같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세대갈등의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서 주의를 요한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표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세대갈등에 대해 더욱 주시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연령주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첫째, 노인에 대한 편견에 있어서는 각 연령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반면,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있어서는 연령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순서로 연령에 대한 차별행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이선자 1989; 정순둘 외, 2013; Hummert et al.,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결국 노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다른 노인들과의 만남에서도 노년에 대한 가치와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해 주는 것이다. 둘째, 세대 간 인식에 있어서 청년층은 자신들의 연령에 해당하는 20대에 대해 다른 어떤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0대 역시 자신들의 연령에 해당하는 70대에 대해 다른 어떤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동류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따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Tajfel, 1982),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했거나 경험하게 될 연령대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한정란, 2002; Bertolino et al., 2013). 이러한 견해는 실제 접촉과 교류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교류가 적은 연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러한 차이가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세대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세대 간 교류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다른 연령집단과의 차이보다는 개인마다의 특수성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한정란, 2002).

한편, 세대갈등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연령차별 심각성 인식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세 집단에서 일치하였다. 이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연령에 의한 차별행위와 정책 등을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세대갈등인식을 더 심각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세대와 비노인 세대 모두에서 있어서 문화적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간주한다는 기존의 연구(이수연 외, 2010)와 비노인층들이 노인층들보다 차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았다(원영희 외, 2006)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결국 연령차별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연령집단은 청년층이었는데, 이는 이들 집단의 교육수준이 높아 실제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행위나 정책적 차별 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 연령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례가 연령차별의 사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변인은 세대 간 인식으로 이는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20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세대갈등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들은 진로를 결정하고 경제력을 갖는 것이 주요 과업인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스스로 유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자신의 세대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대로 인식하게 될수록 부모 이상의 다른 세대와 마찰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세대갈등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중년층 역시 20대 전후의 자녀들을 둔 경우 이들의 결혼이나 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갈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대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각자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필요하다. 각자 자신의 세대를 가장 힘든 세대로 부정적으로 규정짓기보다는 이를 헤쳐 나갈 세대로 인식하고, 현재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세대갈등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로 설정한 일시적 현상으로 세대갈등을 설명하는 관점, 즉 세대교류경험을 나타내는 연령통합변수는 세대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근거가 입증되지 못하였다. 또한 세대교류가 많을수록 세대갈등인식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원영희, 2004; 방희정·이현지, 2012; Brown et al., 1986; Aday et al., 1991)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가 2차 자료를 사용해 분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연령통합 관련변수로 세대교류경험에 대한 단일문항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교류의 질이나 실제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세대교류경험을 고령자와의 교류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연령집단은 세대갈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지만, 영향을 주는 연령주의 혹은 연령통합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세대갈등인식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히, 세대 간 인식하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연령주의 수준을 낮추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을 포함한 다른 세대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세대통합적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어느 한 시점에서의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연령차별, 연령통합, 세대교류, 세대갈등 등을 포괄하는 패널데이터나 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세대갈등이 없는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척도가 갖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세대 간 교류경험 등의 척도에 대해 보다 다차원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연령에 바탕을 둔 연령주의와 연령통합 인식과 세대갈등인식과의 연관성을 보다 실증적인 차원에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량, 2014, “한국사회 세대갈등 현상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21(3): 261-289.

김상호, 2007, “공적연금제도와 세대 간 갈등”, 『분쟁해결연구』, 5: 37-53.

김욱,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 (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단일호): 97-118.

김윤정 · 강인 · 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김주현, 2009, “연령주의 (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역사』, 82: 361-391.

_____, 2012, “연령주의 (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1): 53-75.

김지영, 2005,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연구총서』, 2005(18-2): 1-187.

남순현, 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1-15.

류한근, 2010, “세대갈등 극복을 위한 효 반응체계”, 『효학연구』, 12:55-82.

박길성, 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3-25.

박병석, 1995,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부부, 부모자녀, 고부체계간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

학』, 7:177-188.
박영신・김의철・박영균, 2010,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33-559.
박재흥,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 651-683.
_____,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3): 1-23.
_____,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한국인구학』, 33(3): 75-99.
방희정・이현지, 2012, “노인에 대한 명시적 미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191-213.
안옥희・임희경・김현진, 2002,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347-355.
원영희, 2004,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87-206.
원영희・이금룡・김욱・최혜지・한은주, 2006,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유병래, 2015, “세대갈등과 문화생활-시민성 구현과 관련하여”, 『철학사상문화』, 19: 124-178.
유희정, 2000, “노인들의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이 자녀와의 결속, 갈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연구』, 9: 107-130.
윤인진, 2011,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특성과 변화”, 『분쟁해결연구』, 9: 135-166.
이상록・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사회과학연구』, 29(3): 433-458.
이상림, 2009, “한국의 노년과 연령주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59-777.
이선자, 1989, “연령 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수연・최인희・김인순, 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장익・이명신, 2011, “초등학교 교원의 세대 간 상호인식도와 세대갈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8(2): 257-281.
이환범・김태희, 2014,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6(2): 141-160.
정경희,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5(1): 11-26.
정순둘・이혜원・최혜지・이은진・이고은, 2013, “연구논문: 사회적 자본 및 인적 자본과 인지신념의 관계: 노인집단과 다른 연령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4(2): 113-142.
정순둘・기지혜・이은진・최혜지, 2015a,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380-404.
정순둘・기지혜・최혜지, 2015b,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인식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8(단일호): 161-186.
조성남, 1991,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6-73.
조성남・박숙미, 2002,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9(단일호): 39-68.
최미정・심정신, 2014,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2): 299-306.
최원기, 2006, “세대격차와 세대갈등에 대한 성찰적 논의”, 『한국인간관계학보』, 11(1): 85-103.
최유석・오유진・문유진, 2015,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28-241.

한정란, 2002, “노인교육과 세대통합 : 세대공동체 교육”,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5(1): 91-108.

한정란・이금룡・원영희, 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한국노년학』, 26(2): 381-402.

함인희, 2000,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 공존을 향해”, 『계간 사상』, 44(-): 188-209.

Aday, R. H., Sims, C. R., and Evans, E., 1991,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partner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3): 372-384.

Bertolino M., Truxillo D., and Fraccaroli F., 2013, “Age effects on perceived personality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8(7/8): 867-885.

Brown, R., Condor, S., Mathews, A., Wade, G. and Williams, J., 1986, “Explaining intergroup differentiation in an industrial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9): 273-286.

Chung, R. H., 2001, “Gender, ethnicity, and acculturation in intergenerational conflict of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4): 376.

Foner, A., 2000, “Age integration or age conflict as society ages?”, *The Gerontologist*, 40(3): 272-276.

Higgs, P. and Gilleard, C., 2010, “Generational conflict, consumption and the ageing welfare state in the united kingdom”, *Ageing and Society*, 30(08): 1439-1451.

Hummert, M. L., Garstka, T. A., Shaner, J. L., and Strahm, S., 1994,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P240-P249.

Laws, G., 1995, “Understanding ageism: Lessons from feminism and postmodernism”, *The Gerontologist*, 35(1): 112-118.

Nelson, T. D.,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07-221.

Ng, S. H., 1998, “Social psychology in an ageing world: Ageism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99-116.

North, M. S. and Fiske, S. T., 201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138(5): 982 - 997.

Palmore, E.,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Rosencranz, H. A. and McNevin, T. E., 1969, “A Factor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9): 55-59.

Riley, M. W., 1985, “Age strata in social system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 369-411.

Riley, M. W. and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66-270.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1): 1 - 39.

Thomson, D., 1989, “The welfare state and generation conflict: Winners and losers”, *in Workers versus Pensioners: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An Ageing World, edited by Johnson, P. A., and Conrad, C., Manchester University Press*, 33-56.

Zemke, R., Raines, C., and Filipczak, B., 2000, “Generations at work: Managing the clash of Veterans, Boomers, Xers, and Nexters in your workplace”, *New York, NY: Amacom.*

Abstract

The Influence of Ageism and Age Integration on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

Chung, Soon Dool
(Ewha Womans University)
Jeong, Ju Hi
(Ewha Womans University)
Kim, Mi Ri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ageism and age integration influence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for each age group, and to seek alternatives to decrease intergenerational conflict. Stud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age: adolescence, middle age, and old age groups. For each group, the effects of ageism and age integration related variables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were examin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pecific difference on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on influencing factors to explain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mong those factors, especially, the severity of the perception of age discrimination, which is one of ageism related variables,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for all age groups. That is, the more people perceived the severity of age discrimination, the more people perceived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because this study revealed ageism and age integration could be causes to trigger intergenerational conflict.

Key words : Intergenerational Conflict, Ageism, Age Integration

〔논문 접수일 : 16. 06. 09, 심사일 : 16. 06. 24, 게재 확정일 : 16. 07. 27〕